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비대면 온라인 경연으로 댄스·킥, 단체 배틀까지...

올해 2회째로 3개 부문으로 진행
총 상금 2820만원 28일까지 참가신청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비대면 온라인 경연 방식인 '2020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8월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K-POP을 접목한 창작 태권체조 경연인 '킹 오브 더 태권 댄스'와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선보이는 태권도 트릭킹 경연 '태권 배틀 킥 잇', 도심에서 단체 배틀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열반 태권 캠프' 경연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3개 부문에 걸린 총 상금은 2,820만원이며, 본선 경연은 태권도원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8월 30일에 있을 예선 심사는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9월 19일과 20일 진행

하는 결선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실제 경연이 이루어진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결선 경연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연 참가자와 지도자, 심사위원 등 대회 관계자만 T1 경기장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참가자 가족 및 지인 등은 출입이 불가하고, 본선 참가자 등도 발열 측정 후 입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연 무대와 T1 경기장 내부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참가자들 간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며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비대면 대회이자 태권도 경연 문화의 새로운 장을 선보이는 대회이니만큼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했다.

한편, '2020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안내 및 접수는 태권도원 웹사이트 공지사항 (<https://www.tpf.or.kr/tl/contents/tknotice1.do?schM=view&id=2756>)을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메시-레반도프스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

FC바르셀로나-바이에른 뮌헨, 15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대결

세계 최고 리그의 득점왕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2·바이에른 뮌헨)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메시



레반도프스키

4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고, 3시즌 연속으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다.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시즌 34골 4도움으로 가공할 득점력을 뽐냈다. 3시즌 연속 득점왕이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벌써 13골을 몰아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한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다골(17골)에 4골 차로 따라붙었다.

둘은 지난 9월 16일 16강 2차전에서 나란히 골맛을 보며 예열을 마쳤다.

메시는 나폴리(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1골을 넣으며 3-1, 레반도프스키는 첼시(잉글랜드)전에서 2골 2도움 원맨쇼를 펼치며 4-1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미뤄진 탓에 8강전부터 모든 경기를 중립지역인 리스본에서 단관승부로 진행한다.

이탈리아(이탈리아)-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은 13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라이프치히(독일)는 14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리옹(프랑스)은 16일 맞붙는다. /뉴시스

아이스하키 남 실업팀 최초 여성 코치 '남북 단일팀 골리' 신소정, 대명 합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골리로 활약한 신소정(30)이 남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대명 킬러웨일즈 코치로 새롭게 출발한다.



대명은 11일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16년 동안 아이스하키 여자대표팀 골문을 지켰던 신소정이 골리 코치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대명에 따르면 신소정은 대한민국 남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최초의 여성 코치다.

신소정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스하키에 입문한 그녀는 중학교 1학년인 2008년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 2018년까지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3년에는 아이스하키 중주국 캐나다 대학 1부 리그에서 뛰고, 2016년에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북미여자아이스하키리그에서 진출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평창올림픽 때는 남북 단일팀의 간판 골리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018년 6월 은퇴 후에는 캐나다 모교에서 골리 코치로 후배들을 지도했다. /뉴시스

금석배 고교축구 4강 대진 완성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vs 서울 경신고
충남 천안제일 vs 수원고... 오늘 경기
경기는 무관중·유튜브 실시간 중계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2020 금석배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 4강 대진이 완성됐다.

지난 10일 군산 월명종합경기장과 군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금석배 8강전은 치열하게 펼쳐졌다.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는 경기 SOLFC-U18를 1대0으로 이기며 4강에 진출했고, 서울 경신고는 경기 YGFC-U18를 1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충남 천안제일고와 경기 수원고 역시 각각 경기 용호고를 3대1, 서울 도봉FC-U18를 3대2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지난해 챔피언에 오른 유성생명과학고는 대회 2연패를 향해 순항을 하고 있다.

유성생명과학고(감독 홍위표)는 10일 군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 SOLFC-U18와의 8강전 경기에서 후반 26분 김민재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다.

유성생명과학고는 이번 대회에서 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1명이 퇴장을 당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봉FC-U18를 5대0으로 완파했다. 이어 두번째 경기인 충북 운호고와의 경기에서도 6대0으로 대승을 이끌었

고 광주 송의과학고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했다. 참가팀 중 예선경기에서 전승으로 본선 토너먼트에 오른 팀은 유성생명과학고를 비롯해 경기 계명고, 충남 천안제일고 밖에 없다.

이어 16강에서 만난 서울 보인고와의 경기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7대6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준우승팀 천안제일고도 준결승에 안착했다.

2018년 우승 이후 2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린다.

16강에서 전주공고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오른 천안제일고는 경기 용호고를 3대1로 누르고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한다.

2018년 결승전에서 천안제일고에 패해 준우승에 그친 서울 경신고와 전통의 강호 경기 수원고도 이번 금석배에서 우승컵을 노린다.

대망의 결승전이 결정되는 4강 경기는 12일 오후 5시 동시에 펼쳐진다.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는 대전 유성생명과학고와 서울 경신고가 결승을 놓고 다투고, 군산국민체육센터에서는 충남 천안제일고와 경기 수원고가 맞붙는다.

한편 이번 금석배 축구대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선수단 안전을 위해 전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